

■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 회의일시 : 2026년 02월 10일(화) 14:00~17: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권미선, 남승원, 문태준, 오지은, 조용호

본 사업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작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도서관이나 문학관, 그리고 서점의 경우에는 협업이 가능한 ‘상주작가’를 통해 보다 양질의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가와 해당 시설은 물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문학적 효용과 가치에 공감하면서 그 실질적 확산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는 경제적 안정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시민과 교류하는 경험을 통해 보다 의미있는 문학적 결과물을 산출하고, 일반 시민들은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혼자 할 수 없었던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는 등 의미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한 시설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작가를 포함, 서로 다른 특색을 가진 두 명의 작가를 선정할 수 있는 ‘청년참여형’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의 원래 취지가 보다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은 성과들이 반영되어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는 작년보다 약 30%가 증가해서 171곳의 문학시설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각 시설의 지원이 증가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 신청시설 중에서 약 60% 정도만 선정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은 심의기준에 맞추어 지원신청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은 ‘시설의 여건 및 특성화 수준’,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적정성’, ‘문학생태계 활성화 기대효과’ 등입니다. 더불어 심의위원들은 각자 전문화된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검토 하였습니다.

지원신청서의 프로그램 계획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문학시설 담당자의 열의와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문학시설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문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과 함께 한국 문학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의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상주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의 본질적 성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상주작가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특히 새로운 지원유형인 청년참여형의 경우 한 시설 안에 상주하는 두 명의 작가가 서로 실질적인 결합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제공하는 창작공간의

여건도 상주작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역시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눈여겨 본 것은 이 지원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의 활용과 기대 측면이었습니다. 각 문학시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지, 또한 참여한 시민들이 이 경험을 통해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학적 가치를 어떻게 확장해갈 수 있는지를 두고 숙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주작가가 머무는 창작공간의 안정성, 지원신청을 한 문학시설의 기본적인 운영 여건, 상주작가와 협업하게 될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성, 상주작가에게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대효과의 실질성 등이 높은 시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참여형’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상주작가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구별적 특징과 효과 등에 대해 보다 주목하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원 기간이 확장되어 좀 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 지원신청을 한 문학시설들이 저마다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서 시설간 협업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었으면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상주작가’와 ‘문학시설’ 간의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과 문학적 기대효과 확산이라는 명확한 지원 목표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목표와 의의에 대한 ‘작가-시설-시민’이라는 문학생태계 구조 전반의 호응을 통해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선정된 문학시설은 물론, 이후 선정될 상주작가들은 이같은 목표를 인식하고 우리 문학의 최전선에서 시민들과 함께 문학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줄 것임을 믿습니다.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